

“이단 대처 위해 성경과 바른 교리 정확히 가르쳐야”

서울신대 기독교신학연구소·
한국기독교한림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와
한국기독교한림원이 최근 서울신대 존토
마스터스홀에서 ‘한국교회와 이단, 어떻게 대
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선교 140
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은선 박사(안양대 명예교수)가 좌장
을 맡은 이날 학술대회에는 발표와 논평,
그리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체계·실제적 이단 퇴치운동 전개해야”

본격 발표에 앞서 정상운 박사(한국기
독교한림원 원장, 성결대 명예총장)가 개
회사를 전했다. 정 박사는 “그 동안 많이
성장한 한국교회 못지 않게 이단사이비
도 공존하고 있다”며 “그들은 지금도 고
고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적극적 포교
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 박사는 “한국교회에 이단에 대한 위
기의식과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공
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며 “교파와
교단을 넘어 서로 힘을 합쳐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이단 퇴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그는 이단에 대처할 한국교회 연
합 전문기관의 설립과 신학자 및 신학교
의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아울러 평신도
를 대상으로 이단강좌를 마련해야 한다
고도 역설했다. 그는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을 전하는 이단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단, 육체 아닌 영원한 생명 훼손”
이후 발표에서 목장군 박사(서울신대
전 총장)는 “정통 교회가 성장 둔화와 정
체를 겪는 동안, 물문교·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등 이단 종파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물문교가



한국기독교한림원 원장인 정상운 박사가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1830년 6명에서 출발해 현재 1,7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사례와, 국내에서도 하
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폭발적으로 성장
한 현상을 언급하며 “이단 팽창은 단순
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정통 신앙의 위기”
라고 강조했다.

목 박사는 또 이단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
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늘날 일
부에서는 이단을 신학적 희생양으로 보
고, 정통 교회를 권력의 산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통에 대한 권위주의적
거부감이 이단을 오히려 해방적 대안으로
미화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말했
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단에 대처한
다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여겨지는
흐름까지 생겼다”고 진단했다.

다만 목 박사는 이단 판정의 신중함
도 강조했다. 그는 교리사적 관점에서 이
단을 규정하는 일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
는 점을 짚었다. 에반스, 곤잘레스, 페리
칸 같은 교회사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
며 “정통과 이단의 경계는 역사적으로 일
관적이지 않았고 선형적으로 그을 수 있
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경 해석이 다르다고 모두 이단
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
‘모든 오류가 곧 이단은 아니다’라고 밝
혔다. 또한 역사 속에서 이단 판결이 정치
적 이해관계와 교권 방어에서 비롯된 사
례도 적지 않은지를 지적하며, “사도적 신앙
을 보존하기 위해 이단에 단호해야 하지
만,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결국 “교리사 연구를 통해 과거의
논쟁을 살피는 것이 이단의 실체를 이해
하고 오늘의 교회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

회가 지나치게 보수적일 경우 오히려 이
단이 발생하는 도양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통의 화석화가 이단을
자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켈리의 연구
를 인용해 “전통을 유지하려면 단순 반
복이 아니라 ‘다시 진술하는 번역의 과정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단은 “메
시지 자체를 바꾸는 변혁의 길”을 걷기
때문에 성경과 충돌하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낸다고 분석했다.

다만 목 박사는 이단 판정의 신중함
도 강조했다. 그는 교리사적 관점에서 이
단을 규정하는 일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
는 점을 짚었다. 에반스, 곤잘레스, 페리
칸 같은 교회사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
며 “정통과 이단의 경계는 역사적으로 일
관적이지 않았고 선형적으로 그을 수 있
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경 해석이 다르다고 모두 이단
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
‘모든 오류가 곧 이단은 아니다’라고 밝
혔다. 또한 역사 속에서 이단 판결이 정치
적 이해관계와 교권 방어에서 비롯된 사
례도 적지 않은지를 지적하며, “사도적 신앙
을 보존하기 위해 이단에 단호해야 하지
만,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결국 “교리사 연구를 통해 과거의
논쟁을 살피는 것이 이단의 실체를 이해
하고 오늘의 교회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

라고 결론지었다.

◆ “성경 근거한 사도적 바른 가르침”

이어 ‘이단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책’을
고찰한 이승구 박사(합신대 남송 석좌교
수)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과 바
른 성경적 교리를 정확히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며 “성도들이 성경과 바른
성경적 교리에 익숙하게 되면 주변에 이
단적 가르침이 나타났을 때 최소한 무엇
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것이 옳지 않
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과거의 전형적 이단들과 현대
에 새롭게 나타나는 이단들 자체를 구체
적으로 언급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
도를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 것인지를 잘
드러내야 한다”며 “목회자는 이단들에 대
해 잘 알고 그것을 성도에게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이단에 대한 최선의 대책
은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순결하고 순전한 교회요 성령님께 순종
하는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
며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은 이단으로 갈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성경에 근거한 사도적
인 바른 가르침을 전하면 복음이 온 세상
에 전해지고 개인과 세상이 살아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이단 대처의 딜레마”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탁지일 교수(부
산장신대)는 구체적인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 역사와 최근 이단 동향 및 대처 등
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단 대처에 있어
느끼게 되는 ‘딜레마’를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양의 옷을 입고 합법적으로 포
교 활동을 펼치는 이단들의 광폭 행보를
저지할 만한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
다”며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비성경
적 이단인 것은 분명하나, 현혹과 거리 청
소 등의 이타적인 모습으로 포장된 이들
에 대처하려니, 이기적인 개교회주의로 인
해 사회적 비난에 노출된 교회의 모습이
떠올라 웬지 꺼림칙하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에 ‘사전 예방’ 기능을 가
진 교회의 무기력한 이단 대처 현실이 아
쉽다”고 했다.

◆ “이단 규정 못지않게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 교육에 집중해야”

끝으로 종합논평에 나선 박명수 박사
(서울신대 명예교수)는 한국교회가 어떻
게 해야 이단문제를 공정하게 다루며, 건
전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지, 그 방안
을 4가지로 정리해 제안했다.

①이단논쟁은 교리에 관한 것으로 제
한해야 한다 ②현재 세계기독교를 근본
부터 흔드는 것은 바로 기독교 내부에서

나오는 자유주의신학 ③한국적인 상황
에서 이단문제 연구 ④무엇이 기독교의
본질인가를 분명히 하고 기독교가 용인
할 수 있는 범주 마련

박 박사는 “수많은 이단의 등장은 교
회가 건전한 신학교육을 하지 못한 결과
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
는 이단을 규정하는 일 못지않게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함
으로써 이단으로 빠지는 교회가 사라지
고, 비록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박응규 박사(총
무, 아신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드린 개회
예배에서 이은호 박사(서울신대 부총장)
가 기도했고, 서정숙 박사(강릉영동대 명
예교수)의 성경봉독 후 황덕형 박사(서울
신대 총장)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
도(고전 1:18-2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후 합심기도 순서에선 안명준 박사
(평택대 명예교수)가 ‘나라와 민족을 위
해’, 임성택 박사(전 강서대 총장)가 ‘한국
교회와 동성애 확산 저지를 위해’, 이광희
박사(평택대 명예교수)가 ‘서울신학대를
위해’, 이여주 박사(전 칼빈대 교수)가 ‘한
국기독교한림원을 위해’ 각각 기도를 인
도했다. 예배는 오덕교 박사(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 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진영 기자

현대약품 앞 제6차 ‘먹는 낙태약 수입 저지’ 규탄집회 열려

생명운동연합·태여연, 낙태약 위험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현대약품의 먹는 낙태약 수입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학계·청년 단체들이 최근
서울 강남구 현대약품 본사 앞에서 제6차
규탄집회를 열고, 회사 층의 즉각적 철회
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생명운동연합(대표 김길수 목사)과 태

여연(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이사장 이재
훈 목사)이 공동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의
학 전문가, 생명윤리학자, 대학생 대표 등
이 참여해 낙태약물의 위험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집회에는 제양규 교수(태여연 운영위

원장), 인천가톨릭대학교 김경아 교수(프
로라이프 대학생회 지도교수), 인천가톨
릭대학교 프로라이프대학생회 청년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이들은 낙태약물
의 의학·자살학적 위험성과 생명윤리적 쟁
점을 제기하고 청년 세대와 학계가 바라
보는 생명 가치 회복의 필요성을 전했다.

현장에서 카일생명존중운동(대표 오연

희)은 특별 퍼포먼스를 통해 낙태약물 복
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오연희 대표는 기업
이념과 생명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현대
약품에 낙태약물 수입 중단을 요구했다.

오 대표는 “현대약품이 말하는 ‘모두
가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에는 낙태약으
로 고통받을 여성과 약물로 생명을 잃게



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명운동연합과 태여연은 먹는 낙태약
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출혈, 폐혈증, 자궁
손상, 불완전 낙태 등 심각한 부작용 사
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한국에서 충분한
안전망 없이 수입사용이 논의되는 현실
에 우려를 표했다.

두 단체는 현대약품이 수입 추진 철회
를 명확히 밝힐 때까지 매주 동일 장소에
서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 또 법적·정책적
대응과 연대 활동을 확대, 태아 생명 보호
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2025-2026
강원 봄문의 해
Visit GANGWON YEAR
철원
Cheorwon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1억년, 신비의 세계가
눈앞에서 펼쳐진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협곡
다채로운 바위 순암계곡 절벽과 허공 사이를 걷는 아찔한 잔도

변화의 중심
다시 뛰는 철원

횃불전망대